강진군, '빛나는 6070대학 포럼' 개최

'내 인생의 봄날은 지금, 빛나는 6070' 주제 임천지구 신규마을과 입체적 연계로 인구 유입↑



강진군은 지난 3월29일 강진아트홀에서 '내 인생의 봄날은 지금, 빛나는 6070'이라는 주제 로 '6070대학 포럼'을 개최했다.

6070포럼에는 은퇴자 및 은퇴예정자, 귀농· 귀촌인 등 주로 중장년층의 군민 150여 명이 참석해, 길어지는 평균 수명에 비해 턱없이 부 족한 사회적 인프라와 다양한 기회에 대한 목 마름을 보여줬다.

지금을 보어졌다. 포럼은 강진군 임준형 군민행복과장의 6070 대학 운영계획 설명을 시작으로 고선주 전 서 울시 50플러스재단 본부장의 '행복한 백세시 대를 위한 삶의 전환과 준비', 정찬기 광주 빛 고을50플러스센터 센터장의 '노후 준비 필요 성 및 지원 사업'에 관련된 주제 발표로 진행되 었다.

이어 패널(이정화 전남대학교 생활복지학과 교수, 고선주 전 서울시50플러스재단 본부장, 윤순학 전 강진군청 기획홍보실장, 김옥환 전 남귀농어귀촌인연합회장)들의 토론이 40분간계속됐으며, 참가자들과 질의 응답하는 시간으로 마무리되었다.

빛나는 6070대학은 관내 젊은 시니어층(만 60세~만72세)을 위한 재취업교육, 건강, 취미·여가 등 프로그램 제공 목적으로 강진군에서 아심차게 마련한 교육 과정으로, 막상 은퇴는 했지만, 더 이상 어르신이 아닌 '젊은 노인'으로 여겨지는 일명 '낀세대'를 위한 시대의 흐름에 맞춘 기민한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실제로 6070세대 가운데 대다수는 경로당이 나 복지회관에 가입해도, 막내로 대우받는 등, 점차 노인층에 대한 정의는 8090세대로 늦춰 지고 있는 추세이다.

빛나는 6070대학은 앞으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디지털 역량강화(키오스크, 스마트폰, 컴퓨터, 유튜브) ▲취미 여가(요리교실,라인댄스, 실버요가) ▲전문가 양성 자격증(한식조리기능사,바리스타, 스마트 팜, 청자공예, 푸소 체험) 등의 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6070세대들이 실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4차산업혁명의 생활화와 관련된 다양한 교육은 물론, 군에서 전략적으로 추진 중인 임천지구 신규마을 조성과 관련해 푸소 체험, 묵은지사업, 스마트팜 교육도 함께 병행해, 인구유입 방안과 입체적으로 연계한다는 전략이다.

임천지구 신규마을 조성은 올해부터 2026년 까지 강진읍 임천지구 일원에 주거공간과 일 자리를 동시에 제공해 인구 유입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93농가에 그치는 푸소 농가를 250 농가까지, 묵은지 사업체는 현 44개 업체에서 100개 업체까지, 청자공예도 현재 38명에서 100여 명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임천지구 사업은 도비와 군비 1:1의 비율로 100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도비 확보를 위한 1차 평가는 4월에 진행된다.

강진원 군수는 "퇴직 후에도 활동을 해야 하는 6070세대는 인생의 중요한 전환기를 맞고 있다"며 "중년과 노년의 달라져 가는 정의에 발 빠르게 대응해, 사회의 구성원으로 여전히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하고 전문적인 교육을 지원함을 물론, 새로운 주거 공간과 일자리 제공을 목표로 하는 임천지구 신규마을과 연계해,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강진=김영일기자

장흥군,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추진 박차

거점센터 명칭 선정…배후마을회관 개축 등 추진위 4차 협의

장흥군이 장흥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의 추진을 위해 지역대표로 구성된 추진위 원회(위원장 박용주) 회의를 3월30일 개최

이날 회의에서 중심지활성화사업의 건축 도목 역량강화사업 각 분야의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사업 진행과정에서 돌출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였다.

했다.

공용건축물로써 장흥읍 덕인주차장 부 근에 건립될 주민거점센터의 명칭은공모 와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장흥힐링테 라피센터"로 명명하고 적극적인 주민홍보 를 다짐하였다.

장흥힐링테라피센터(지상3층, 연면적

1,499㎡)는 북카페, 어린이놀이방, 동아리 방, 마을방송스튜디오, 생약초 테라피실 등으로 조성되며 현재 건축허가를 받아 본격적으로 공사에 착수했다.

건물 내 시설구성 중 신활력플러스사업을 연계한 생약초 테라피실 운영은 피부 및 건강관리를 위한 명소역할을 톡톡히 함으로써 관광객 유입 효과가 있을 것으로기대된다.

가로(街路) 정비 사업은 장흥로 · 중앙로 일원에 인도(보행로)를 설치하는 공사로 당초 연장 630m에서 추가구간을 계획하여 총연장 880m를 개설하는 방안을 협의하였다. 장흥=김도영기자

완도군, 농어촌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 선정 20억 확보

완도군 금일읍 궁항마을이 국가균형발전위 원회에서 주관하는 '2023 농어촌 취약지역 생 활여건 개조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는 쾌거 를 이뤘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은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주민 안전 확보와 삶의 질향상을 목적으로 2015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올해는 전남도의 사전 평가와 전문가 컨설팅, 균형위 대면 평가 등을 거쳐 금일을 궁항마을이 선정됐다.

사업 선정으로 2026년까지 총 2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어 ▲마을 안길 및 공동생활시설 정비 ▲슬레이트 지붕 개량, 빈집 정비 등주택 정비 ▲치매 예방, 건강 체조 등 건강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성공적인 사업 성과를 도출하고 궁항마을 을 더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완도=기동취재본부

해남군 민관군경 드론 운용 협업 플랫폼 개설

9개 기관 협력 각종 사건사고시 신속 대응으로 안전 수행

해남군은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효율적인 재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드론운용

협업플랫폼은 민관군경 9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기관들의 인적, 물적 자원을 행정안전 부 협업이음터 시스템에 등록하고, 해남군은 온·오프라인 협의를 통해 사건·사고시 공조 및 협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민관협업 플랫폼을 개설한다.

앞서 해남군과 해남경찰서, 해남교도소, 해 남소방서, 육군 제8539부대 4대대, 해남드론교 육원, 꿈꾸다 드론교육원, 해남군청년드론연구 회, 비상드론 동호회 등 9개 기관은 드론운용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플랫폼은 3월 까지 구축을 완료하고, 해남지역 내 각종 사건· 사고 발생시 대응과 연합 훈련 등 신속하게 통 합 안전 수행을 위해 협력해 나가게 된다.

해남군에서도 통합관제팀 직원들이 초경량 비행장치 무인 멀티콥터 조종 자격을 보유하



고 있으며, 산불감시, 실종사 수색 등 사건사고 대응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군은 유관기관과 긴밀한 유기적 공조체계를 상시 구축함으로써 현장의 최일선에서 4차 산 업의 핵심기술인 드론을 현장감있게 적극 활 용해 재난, 재해 등 위급한 상황에 군민 안전 인프라를 확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하고 있다. 해남=기동취재본부

진도군농협 쌀 적정생산 설명회 개최



진도군 농협진도군지부(지부장 주명규)는 3 월30일 농협진도군지부에서 진도군 미래농업 팀 및 관내 농협 쌀 업무 담당 직원들이 참석 한 가운데 2023년 쌀 적정생산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를 게되어졌다. - 주요 내용은 진도군 쌀 적정생산 진행 상황 공유, 목표 달성을 위한 농식품부의 가루쌀 재배 지원 등 전략작물직불제 정책 설명, 벼 적정 재배면적 확보를 위한 전라남도와 진도군의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설명, 범농협 집중 홍보방법 공유와 참여 농협 지원 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이 날 참석한 직원들은 진도군 및 읍면사무 소와 적극 협조하여 조합원들에게 쌀 적정생 산을 위한 벼 재배면적 감축의 필요성과 사업 참여 시 혜택 등에 대해 홍보하여 많은 벼 생 산 농가가 재배면적을 감축할 수 있도록 노력 하기로 하였다.

진도군지부 주명규 지부장은 "쌀값 안정으로 농가 소득이 지지될 수 있도록 진도군과 적극 협력하여 농가에서 벼 재배면적을 10% 자율 감축할 수 있도록 조합원을 대상으로 홍보와 서명운동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기 <u>가</u> 된었다. 진도=조상용기

